대우일렉 인수전 美월풀도 참여

세계 3대 가전업체 모두 참여…채권단 내주중 매각 공고

삼성전자 냉장고·세탁기에 대해 덤핑 제소한 미국 최대 가전업체 월풀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월풀이 인수전에 뛰어들면 일렉트로룩스와 보쉬에 이어 세계 3대 가전업체가 모두 대우일렉 인수전에 참여하게 돼 광주에 기반을 둔 대우일렉은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6일 채권단과 M&A업계에 따르면 월풀은 최근 대우일렉 채권단에 향후 매각 일정과 가격 수준 등을 문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월풀이 최근 대우일렉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풀은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세로 주력인 냉장고 시장을 잃게 되자 미국에서 두 회사를 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지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월풀이 냉장고 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가격(덤핑) 때문이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때문이라고 ITC가 판단한 것 같다"며 "월풀이 타개책을 찾기 위해 인수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풀이 대우일렉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보쉬 등 세계 3대 가전업체가 모두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업체 중에선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대우일렉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SM그룹은 2007년까지 진덕산업, 벡셀, 경남모직, 남선알미늄, TK케미칼, C&우방 등 부실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M&A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대우일렉 매각은 빠르면 다음주 재개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조만간 회의를 거쳐 다음주께 대우일렉 매각 공고를 낼 방침이다.

대우일렉 지분 약 53만주와 6500억원에 달하는 채권 전량이 매각 대상이다. 매각 가격은 3000억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일렉 최대주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지분 57.4%를 갖고 있으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37%, 외환은행이 6.79%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과거 대우전자 시절 삼성·LG와 함께 가전시장을 주름잡다가 외환위기 후 대우그룹 해체로 시련을 겪었다. 최근 소형 가전 등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출확대 전략 토론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26일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수출확대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인형 광주발전연구원 산업경제실장과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안선영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합산업팀장, 정신환 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장, 강기운 동의나라(주)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우리로광통신 코스닥 상장 추진

지역 광통신업체 처음…예비심사청구서 제출

광주 대표적 광통신업체인 우리로광통신(대표이사 김국웅)이 지역 광산업체로는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우리로광통신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로광통신은 2개월간의 청구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을 준비해 공모와 상장 신청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께 코스닥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이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로광통신은 지역 광산업계 1호 코스닥 상장사가 탄생하는 신기원을 세운다.

우리로광통신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개월간 청구서 심사와 공모, 상장 절차를 거쳐 8월께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로광통신은 예상 공모가를 1만400원~1만1800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로광통신은 지난 1998년 광주 평동산단에 설립, 초고속광통신망인 댁내광가입자망(FTTH)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분배기와 고신뢰성 평판형 광섬유 어레이 등 수동광소자를 개발·수출하고 있다. 총 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315억원, 자본금 23억원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350억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월 지역경제 생산 늘고 소비 줄어

한은 경제동향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과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제조업 생산은 광주지역이 자동차와 트레일러,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전남지역은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등이 증가세를 지속했다.

2월중 광주지역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9.5% 증가했고, 건축허가면적도 증가로 전환(-23.7%→+102.6%)했다.

전남지역 건축착공면적은 감소폭이 확대(-9.4%→-11.0%)됐으나 건축허가면적은 증가세를 유지(+36.9%→+32.0%)했다. 승용차 등록대수는 광주·전남 모두 증가로 전환(-26.0%→+4.8%, -19.9%→+8.0%)했다.

3월중 수출은 광주가 자동차, 전자전기 등을 중심으로, 전남은 화학공업제품, 선박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광주·전남지역 모두 상승세가 둔화(+2.9%→+2.4%, +2.7%→+2.3%)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중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폭이 소폭 확대(+0.7%→+0.9%)됐고, 전남지역은 오름세가 소폭 둔화(+0.8%→+0.6%)됐다.

3월 광주지역 실업률은 상승(3.2%→4.6%)한 반면, 전남지역 실업률은 하락(2.5%→1.9%)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차 8년만에 생산직 공채

청년 실업·장시간 근로 해소 나서

현대차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생산직 공채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장시간 근로문제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자동차 생산부문에 종사할 정규 생산직 신입사원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2004년 이후 보훈대상자 자녀 또는 금형·보전 등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생산직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일반 생산부문을 대상으로 공채에 나선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채 후에도 연내에 단계별로 생산직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번 공채의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전문대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이수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자에 한한다.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와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한다.

접수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이다. 현대자동차 채용사이트(http://recruit.hyundai.com)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김성산〈사진〉 금호고속 사장이 '2012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고객만족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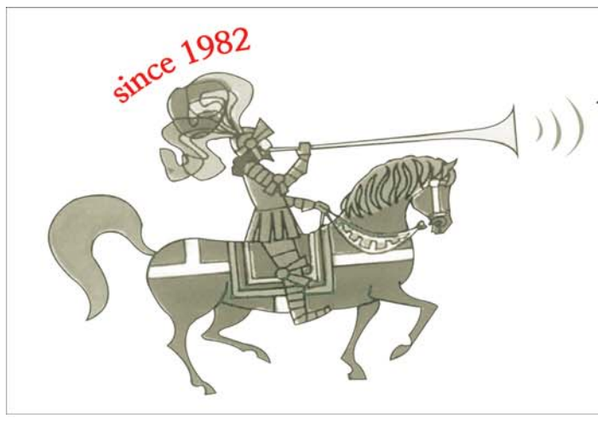
김 사장은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 등 타업체와 차별화된 고객행복경영을 실천한 점이 인정됐다.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은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한 최고경영자들의 리더십을 재조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64.04 (+2.06)
▼ 코스닥지수	476.62 (-6.86)
금리 (국고채 3년)	3.49% (0.00)
▼ 원·달러 환율	1,136.20원 (-5.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현재 풀리지 않는 일들은 임진년 윤달 기도로...

神通(신통)의 현담스님 초청 '사주천명' 개인친견

壬辰年 윤달은 '자작자수' 와 '초재진보'를 이룰 수 있는 달!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소멸시킬 수 있는 윤달. 재물과 명예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의 윤달.

운세는 본인의 전생업에 따라 변해

스님께서는 개인의 사주에는 정명(正命), 수명(隨命), 조명(遭命)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명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길함이 저절로 이르는 것인데 전생에 많은 선업의 공덕 때문이며, 둘째 수명이란 힘써 노력하면 길복이 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대로 흉화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이란 좋은 일을 하여도 재앙이 닥치고 원하는 바도 아닌데 밖에서 부딪혀 흉화를 만납니다. 여기에는 전생에 크나큰 과보때문이니 이렇게 세 가지 명을 추명하여 자신이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神通의 사주천명 집대성

부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묻는 불자 여러분에게 스님께서 여명(黎明)을 비춰줍니다. 전국 명산에서 35년간 수행으로 쌓은 선근(善根) 공덕(功德)을 중생들에게 돌리는 마음으로 사주친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근심과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자신의 다가올 운을 알려드려 실패를 막고 형통의 기운이 생길 수 있는 방편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친견을 권해드립니다

- 창업/자영업
- 결혼/이성문제
- 취업/이직/승진
- 학업/진로문제
- 삼재/조상
- 부동산/주식

사주 친견비 : 2만원

광주광역시 일정

일시 : 2012년 5월1일~2일(2일간)
장소 : 광주시 서구 화정동 858-5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사전예약 062-385-9954

⊙ 사전 예약하신분만 개인친견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주천명 기간내에 친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초재진보' 부적을 무보시로 드립니다. 경면주사로 직접적은 신필부적으로 비밀스런 곳에 보관하시면 효험이 빠르게 나타납니다.